

### 미국, 10년 후 젓소 줄고 유제품 수출 증가

미국 내 젓소 사육두수는 향후 10년간 줄어드는 반면 생산성은 증대하고 수출액은 늘어날 것이라고 발표되었다. 미국 농무성이 최근 발표한 장기 전망자료에 따르면 2021년 미국 내 젓소사육두수는 현재 910만두에서 16만두가 줄어든 894만두 수준으로 예상되며 세계적인 유제품 수요증가로 수출물량은 현재 92억파운드에서 162억파운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젓소 두당 생산성은 향후 10년간 늘어나고 유제품 생산량은 수출 증가로 증가되지만 미국 내 1인당 음용유 수요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었다. 특히 농가 수취유대는 인플레이션율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하락이 예상되지만 업계의 노력으로 전체 거래가격은 100 파운드당 현재의 20.15달러에서 21.75달러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편 금년도 낙농목장당 수익은 사료가격 인상과 유대인하로 지난해 23만9천 8백달러에서 27%가 감소한 17만5천5백달러 수준으로 전망되었다.

(www.dairyherd.com 2월24일자)

### 유럽, '15년 우유쿼터 철폐시 국제시장 영향

유럽연합에서 오는 '15년 우유생산쿼터가 철폐되면 세계 유제품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네덜란드의 라보 농업은행 전문가들이 전망하였다. 이들은 유럽 우유 생산쿼터 철폐시 36억ℓ의 우유가 더 생산될 것이며 이들 우유는 중동, 러시아 시장등에 유입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특히 뉴질랜드 유제품의 주요 수출국인 동남아시아와 중국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세계 유제품 교역량이 중국등의 수요에 힘입어 그동안 7.5%가 성장하였기 때문에 향후 5년간 매년 2.5%가 성장한다면 185억리터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전지분유 가격은 그동안 톤당 3천3백달러에서 3천8백달러에서 형성되어 향후 5년간도 이 정도선에서 안정세를 이룰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지난해 유럽연합 우유생산량은 전년대비 2.1% 증가한 1천233억ℓ, 미국은 1.8% 증가한 864억ℓ, 호주는 3~4%가 늘어난 95억리터, 뉴질랜드는 8~10%가 증가한 187억~191억ℓ가 생산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www.nzherald.co.nz 2월29일자)

### 러시아 연해주서 FMD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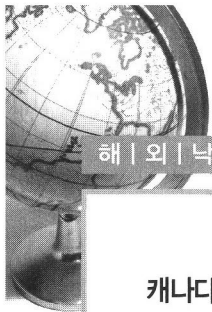
러시아 연해주에서 FMD가 발생했다는 보고에 따라 방역당국이 해당지역에 대한 축산관계자의 여행자제를 당부하고 나서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러시아 연해주에서 지난 달 26일 소 7두, 면양 22두 등 29두의 가족에서 FMD(O형)가 발생, 모두 34두가 살처분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은 지난 6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보고됐다.

농식품부는 이에따라 각 지자체와 관련단체로 하여금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 진출한 국내 축산관련 종사자를 파악, 입국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신고토록 해 현장소독과 함께 최소 5일간 농장출입을 금지토록 하는 등 철저한 조치를 당부했다.

러시아와 중국 등 FMD 발생국가에 대한 축산관계자의 여행 자제와 함께 가축질병 의심축 발견시 방역기관에 대한 신속한 신고가 이뤄질수 있도록 홍보도 요청했다.

특히 지자체에 대해서는 축산농가의 소독 실태 점검 및 예찰활동 강화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방역조치에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 캐나다, 자유무역협정에도 우유 쿼터제도 유지

캐나다 정부는 환태평양 자유무역협정에 가입하여도 축산농가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유 쿼터제도 등 보호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같은 언급은 호주와 뉴질랜드 정부가 캐나다 정부의 농업분야 보호를 위한 공급 관리 시스템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후 나온 공식발표로 주목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우유와 닭고기와 같은 농산물 보호를 위해 쿼터제도와 가격 지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입품에 대해서는 엄격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 캐나다 우유생산 쿼터가격은 주별로 차이가 있는데 지난해 10월 기준 퀘벡주에는 2만5천달러이고 브리티쉬 콜롬비아에서는 4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환태평양 자유무역협정은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칠레, 말레이시아 등을 포함한 9개국 이 협상을 진행 중이며 일부국가는 농산물 공급관리제도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www.edmontonjournal.com 3월13일자)

### 호주, 과도한 젓소 수출로 유전능력평가 차질 우려

호주 젓소개량 전문가들이 과도한 호주산 젓소 수출이 자국 내 젓소의 유전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는데 차질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호주 가축개량기관인 제네틱 오스트레일리아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젓소 육성우의 해외수출 증가가 호주 젓소의 개량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호주산 후보종모우의 유전능력 평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목장에 적정 두수의 딸소 생산기록 유지가 필요한데 수출 증가로 이 평가두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호주 낙농가들이 미경산우를 수출하는 경향이

있어 후보 종모우의 최초 유전능력평가 성적을 얻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0여년간 호주산 젓소 해외 수출두수는 30여개국에 50여만 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www.abc.net.au 3월14일자)

### 일본, 전농 2/4분기 배합사료가격 톤당 900원 인상

일본의 농협인 JA 전농은 최근 금년도 2/4분기 배합사료가격을 전국 모든 축종평균 전 분기에 비해 톤당 900엔 인상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사료가격 인상은 엔화 약세와 옥수수 가격 상승이 주요 요인으로 이번에는 배합사료가격 안정제도에 의한 기금보전이 없어 농가의 실질부담은 2분기만에 늘어나게 된다. 현재 일본내 달러 환율은 12월 중순 이후 1달러 77엔 정도를 유지하였지만 2월 중순 이후 엔화 약세가 진행되어 현재는 83엔 전후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미국 시카고 시장의 옥수수 가격은 1부셀(약 25kg)당 6달러 전후였지만 남미의 생산량 전망하락으로 현재는 6달러 후반까지 상승하고 있으며 대두박 가격도 같은 기간 30% 정도 오른 것으로 발표되었다. 한편 해상운임은 새로 건조된 선박증가로 사료원료 상승분을 상쇄할수 있는 정도까지 떨어져 이번 인상은 엔화 약세가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장기 옥수수 가격 전망은 미국의 기말 재고가 감소하고 중국 등의 해외 수요도 증가 추세여서 건조하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㉞)

(일본농업신문 3월17일자)